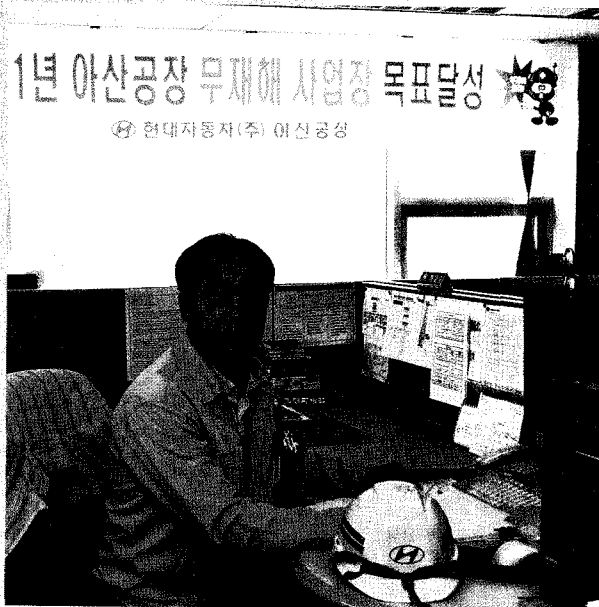


안전은 가정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조규환 환경안전팀 차장

취재 · 사진 | 현천일 기자(safehci@safet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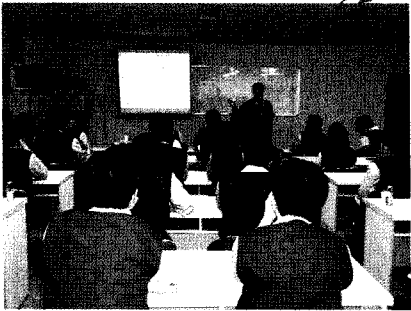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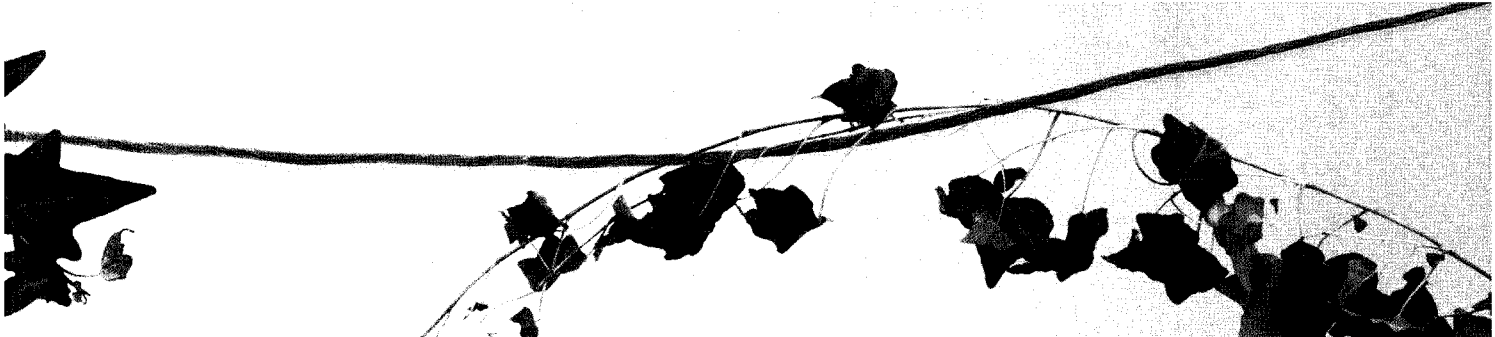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푸른 서해바다의 삼교호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 산이 영험하다하여 부르는 '영인산'을 끼고 자리잡고 있다. 1996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조립공장과 엔진 및 소재공장 등을 모두 아우르는 수출전략형 자동차공장이다. 연간 50만대 규모의 목표를 가지고 다수의 차종보다는 선택·집중전략으로 주력차종인 HG그래저, YF소나타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환경안전팀 조규환 차장은 2011년 무재해사업장을 위해 오늘 하루도 무서운 정도의 집념을 가지고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간과 로봇이 하나되어 3만여개의 부품들을 차체에 채워 단순한 쇠덩어리에 생명을 부여하여 휴먼자동차를 탄생시켜내는 것이 우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존중'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요"





현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안전, 그것은 현장과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이다

1982년 울산공장에 입사한 그는 아산공장 개시 시점에 맞춰 차량 생산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했고, 지난 2004년 환경안전팀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처음 환경안전팀에 발령받을 당시 아산공장은 높은 재해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렇게 부담감 많은 상황 속에 업무를 부여받은 그는 안전캠페인,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여 얼마 후 재해율을 감소하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자신이 해냈다는 생각에 그때 처음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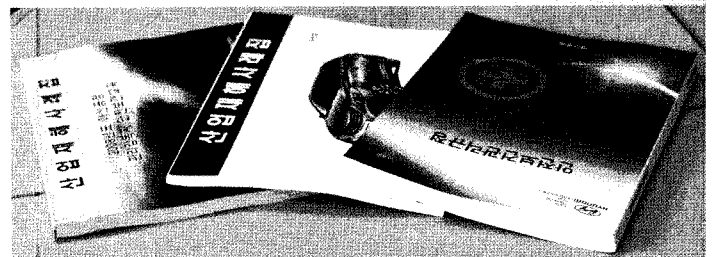
그는 무엇보다 현장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 직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아래, 업무를 맡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끝없는 대화와 토론 속에서 안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직접 직원들을 독려해나가고 있다.

SHS(Safe Home Start) 운동 전개

본인의 책임보다 남을 탓하는 나쁜 사고방식은 정부의 법, 회사의 제도, 환경보다는 개인의 인성과 의식수준에서 만들어진다. 즉, 가정에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아산공장에서는 조규환 차장의 주도 아래 '안전은 집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Safe Home Start"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부터의 안전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모든 근로자들이 가정에서도 안전을 철저히 실천해준다면, 그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무재해사업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심하는 "안전문화 정착" 주목

안전과 일이란 힘들고 지루한 것으로 인식되면 안된다. 생활을 즐겁게 또 풍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노사가 모두 공감해야 하는 부분이다.

조규환 차장의 활동 중 주목을 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노사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안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게 하는 건강한 원동력이라는 공감대를 노사가 함께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규환 차장의 이러한 신념아래 이곳에서는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는 물론 전공장 분기별 안전캠페인과 테마선정 안전점검, 합동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을 대상으로 한 실행요원교육 등에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으로 선진화된 안전보건관리 정착

이곳은 여타 제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도, 협착재해의 위험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생산설비에 의한 위험과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도를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이곳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공정별 위험성평가를 도입·운영하여 자율적이고 선진화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근골격계질환의 위험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휴업치료제도'도 회사차원에서 적극 정착시켜나가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질환 예상자를 사전조사·연구하여 4개월 동안의 치료와 1개월간의 재활치료를 돕는 제도다. '인간존중'의 이념 속에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이곳의 안전마인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규환 차장은 위의 안전활동을 주도하고 관리한다. 때문에 그에겐 많은 책임과 부담감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이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에 몸이 피곤하고 아파도 안전을 위한 일을 끝까지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의 虎視眈眈(호랑이의 눈으로 보고 살피라) 자세와 한 번 의심스러운 것은 5천 명이 넘는 직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